

민중의 가치관 확립

환경파괴, 인간소의 해결 출발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생명, 땅, 생명 경시에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분열과, 노동 소외, 환경 파괴를 해결할 세 계사적 첫 출발점은 생명의 가치관 확립 운동입니다”라고 김지하 시인은 강조한다.

김지하 시인은 생명사상에 큰 울림을 준 것은 70년대 잡지에서 풀씨가 썩어있는 모습에서 깨달았다고 한다.

오늘날 환경의 위기와 같은

정부의 무기수입 인생고 해결부터

집권정권이 종결된 직후 우리 나라와 몇몇 나라에서는 미국에 집권정에서 당위를 펼친 페트리 에르미사일 구입 요청을 했었다. 페트리에르미사일은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미사일을 겨냥하는 모든 요격을 해 미국의 군사기술과 요격 미사일의 정확도를 만방에 자랑하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남한의 모든 곳은 사정거리안에 드는 결과, 페트리에르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과 소련이 군축협상을 진행하고 또한 군축을 단행하고 있는 시대에 북한과 남한 사이엔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 및 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다, 페트리에르미사일이다, 하며 무기만을 사들일 것이 아니라 갈수록 뛰어나오는 물가를 잡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닐까?

박 생 수

(원자·3)

“수서비리 진상 밝혀라” 제도언론 정부선전 지양해야

지난 2월초 세계일보에서는 ‘수서비리진상특혜 정·경·관 유착’이라는 제목으로 특기사를 보도했다.

그후 각 일간지에서는 우후죽순적으로 수서와 한보그룹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에따라 국민들은 웅성웅성,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들끓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한달 남짓 지난 지금, 각 매스컴은 거의 가시적으로 수서보도를 기피하고 있으며 국민의 시선 또한 지방자치제 기초의회 선거에 쏠림이 맞추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일본

소비वाद, 온갖 범죄와 윤리적 무기력, 신기술 개발과 노동 소외, 관료주의와 노동자의 무력감, 종교·교육·문화·매체 등의 몰신 숭배와 환상적 도피 경향 사이의 이중 구조는 아주 복잡하고, 그것은 집단적 정신 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다. 황폐한 인간관식, 소외감, 병적인 자기 분열 현상이 한 없이 반영되고 있다. 엄청난 정신적 소모와 엄청난 자기 파괴, 이웃과의 경쟁, 가족의 해체, 친척과의 반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실이 없는 돈도 벌 수 없고 밥도 먹기가 힘든 세상이 오늘날의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지하 시인은 현재를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새로운 종교적인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시대”라고 규정한다. 또한 자기 내면의 보다 깊은 성찰, 자기 실현에 대한 욕

구, 정신적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신적 욕구와 같은 것이 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갈증이 개벽의 가장 큰 조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지속되어 진다. 만일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거나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불가능해질 때 삶은 바로 죽음에 가까워 질병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김지하 시인은 오늘날 민중의 정신적 분열과 좌절이 결코 단순한 차원이 아니며, 그들의 욕구와 희망 또한 단세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안정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민중인데, 혁명적 변화만 강요하면 민중은 지쳐 버립니다. 또 안정만 주로 하면 썩게 됩니다”라는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민중에 대한 이해를 인텔리들의 체계화된 정치적 개념이 아닌 민중의 살아 생동하는 우주적·역사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

받게 된다.

현재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전면적 시장 압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농촌경제의 파탄, 퇴폐·향락 문화의 만연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지하 시인은 이렇게 꼬집는다. “생명은 자기 주체적인 동시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체만 강조하고 개방을 놓쳐 버리면 그 생명체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방을 너무 해 가지고 이런 화냥년·참년살입니다. 자기 민족의 문화적 기성, 성격의 자주성을 유지하지 못한 민중은 결국 멸망하기 마련인 것이죠”

사회가 크게 혼란하고 변동하게 될 때는 언제나 집단을 만들고 집단에서 외쳐서 모든 구속이나 소외감, 정적 상실, 고통 등을 집단적 행동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김지하 시인은 요즘 교외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교외가 주는 것은 환상적인 도피, 마약이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중은 생명의 차원에서 더 넓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일정한 시련, 고통, 죽음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수양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개혁 또는 혁신 활동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날입니다. 비록 낮은 차원, 좁은 범위에서라도 지금 여기 생명, 삶의 질적인 추구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차츰 질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노력, 운동, 전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정공이나 앞으로의 생업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간의 이해와 요구를 절충하여 좀더 원활하게 학교를 다니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 채 령

(사회·2)

외대 연합합창제 참가

제3회 서울시내 외대대학 연합합창제 ‘하나를 위한 울림’이 오는 20일 오후7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참가학교는 본교외대를 포함하여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의대, 중앙의대.

수원 북학생합창회

수원캠퍼스 ‘91학년도 북학생합창회’가 오는 19일 오후4시 체육교육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교수동정

유명철교수 미국행

▲허충렬(외대·외과)교수=지난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신치료제에 대한 학회참석차 덴마크로방문

▲유명철(외대·외과)교수=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학술회 참석차 미국방문

동문모임

배명고 동문회

【수원캠퍼스】▲배명고=오늘 오후5시, 1호관후계실 ▲배문·서문고=오늘 19일 오후5시, 1호관후계실 ▲문경·점촌향우회=오늘 19일 오후5시, 르노와르 ▲안성향우회=오늘 20일 오후5시, 학생회관후계실 ▲명지고=오늘 20일 오후5시, 1호관후계실 ▲중앙고=오늘 20일 오후5시, 1호관후계실 ▲울산향우회=오늘 20일 오후5시, 1호관후계실 ▲고척고동

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대학의 학사일정은 지나치게 짧다. 개강을 하고 6주가 지나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고 또 다시 6주간 지나면 종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강이 곧 종강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종강준비를 서두르자는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1991년 제1학기를 어떻게

3월주제

‘개강’

더불어 지방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머무를 거처를 마련하는 등 모두가 개강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대학구성원 모두는 마치 출발선에 서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 육상선수들처럼 개강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드디어 3월이 되고 대학의 문

인생의 한부분

개강은 좋은 인생을 설계하고 의미

있는 대학생활에 대해 음미하는 시간

이 활짝 열렸다. 적막하게만 보이던 캠퍼스에 생기가 감돌고 부분기대 속에 활력이 솟아올라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 않으나 필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서서히 멋진 종강을 준비하자고 제안

게 마무리 해야할까?

우선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인생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이번 학기를 정리해야 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1대 총예비역 학생회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환영회에 북학생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갈야학교사 모집

신갈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신갈 4거리에서 민속촌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신갈야학은 지난4일부터 4월7일까지 교사를 모집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